

<http://dx.doi.org/10.14387/jkspth.2021.77.483>

홀리스틱 교육과정으로서의 성지순례 연구

김진영

(연세대학교 외래교수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 초 록 ■

수년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현대인들에게 정서적 불안 및 경제적 위기를 겪게 했고 이러한 영향은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안전한 해외관광이 가능해질 때, 성지순례는 그동안 교회가 소극적으로 목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교회 구성원들의 신앙형성 및 성숙을 위한 불충분한 교육의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정서적 불안 등과 같은 과제를 타개하기 위해 홀리스틱 교육과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홀리스틱 교육과정으로서의 성지순례는 네 가지 차원을 포괄한다. 첫째, 초월자 및 초월자로부터 제공된 계시들, 초월자와 신앙인 간 상호작용 속에서 양산된 경전 및 문헌, 그리고 역사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정보들에 대한 학습자의 접근과 관련하는 인지적 차원이다. 둘째, 학습자에 의한 감정, 가치 판단, 특정한 의미에 대한 내면화 및 인격화 등과 관련한 정서적 차원이다. 셋째, 행동적 차원이다. 학습자의 행동은 무조건적 반사의 수준을 넘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의사소통, 정서적 차원에서의 인격화에 따른 주제적 및 창의적 행위 등에 관련한다. 넷째, 영적 차원이다. 기독교 교육환경에서의 영적 차원은 인간의 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 내용들 간 연결과 통합, 그리고 피조물로서 인간이 창조자인 초월자를 감지하고, 초월자의 활동에 대해 경외와 감탄을 보이며, 초월자와의 관계형성 및 성숙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지순례는 일반적인 관광과 구

별된다. 그것은 초기 기독교 유물이나 장소들과 관련한 순례로부터 오늘날 현대인들의 개인적 경건에 이르기까지 성지순례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초월자와의 관계 및 초월자의 활동에 대한 경외와 감탄이 관련한 영적 차원을 통해 홀리스틱한 신앙형성 및 성숙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홀리스틱한 교육과정으로서의 성지순례를 위해 성지순례 전 예비교육, 성지순례 중 교육, 그리고 성지순례 후 계속교육으로 구분하면서 각각의 교육모형을 제시한다.

주제어

성지순례, 교육과정, 홀리스틱 교육, 교회교육, 신앙형성

I. 들어가는 말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 세계 각국의 초기 방역정책은 자국의 국경 폐쇄 및 제한된 입국 허용이었다. 한국관광공사 해외여행자수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 이전 해외여행자수는 2015년 19,310,430명, 2017년 26,496,447명, 2019년 28,714,24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에는 4,276,006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¹⁾ 특별히 방문국을 이스라엘로 한정했을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 2015년 22,600명, 2017년 40,300명, 2019년 60,400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2020년 경우 16,800명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²⁾ 그러나 머지않아 이스라엘 경우 자국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백신에 의한 방역효과 및 집단면역체계 구축, 백신접종 완료 자에게 발급되는 소위 ‘백신여권’제도와 격리면제 등으로 국경을 개방하게 될 것이며, 그에 발맞추어 성지순례 역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 한국관광공사, “국민 해외관광객”, 접속 2021.10.30.,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_lab/portal/tst/getDtrmcNatiCustForm.do
2) 한국관광공사, “국민 해외관광객(목적지별)”, 접속 2021.10.30.,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_lab/portal/tst/getDtrmcNatiCustForm.do

본 연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수행해 온 성지순례를 기독교교육 차원에서 그 의미를 성찰해보고 성지순례를 홀리스틱 신앙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재개념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신앙의 차원으로서의 성지순례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면, 최화선은 성지순례를 경험하는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과거의 성서적 사건에 대한 시각적 회상뿐만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성스러운 유해들, 그리고 역사적 잔존물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기적(奇蹟)을 통해 경험되는 신앙적 의미 획득을 강조한다.³⁾ 이기락은 성지순례는 회개의 여정으로서 기독교의 바탕이 되는 사건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이 주는 의미들의 불충실에 대한 참회, 과거 성서적 사건들에 대한 회상 및 내면화를 위한 참여로 이해한다.⁴⁾ 권중현·정익준은 성지순례 참가동기를 성지에서 수행하는 기도와 예배를 통한 은혜와 감동의 체험, 새로운 믿음과 지식의 깊이, 폭넓은 성경 이해 및 교회 이해, 회개, 그리고 가족의 행복과 축복의 소망으로 보았다.⁵⁾ 김정락은 중세시대 일반적인 신자들에게 나타난 신앙의 감각적 차원이 유발한 물리적 증거에 대한 선호가 기독교 미술, 성유물 숭배 및 성묘순례를 야기한 동기였다고 보았다.⁶⁾ 권봉현은 성지순례를 통해 신앙의 차원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고 누우치며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복, 그리고 설교와 미사 등을 통해 듣거나 읽었던 성경을 성지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⁷⁾ 류정화·조발그니는 성지순례 경험을 통해 개인이 갖는 종교에 대한 생각 및 태도라는 종교성 개념의 하위 내용들, 즉 신앙의 차원이라 할 수 있는 신경(信經)에 대한 동의, 경건성, 교회출석, 조직 활동, 종교생활 등의 강화 정도를 분석했다.⁸⁾ 조

3) 최화선, “장소에 관한 새로운 종교학적 접근의 모색,” 『종교연구』 34(2004) 337-363.
 4) 이기락, “신앙생활과 성지순례,”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57(2006) 129-151.
 5) 권중현·정익준, “기독교 성지순례 참가동기, 성지매력속성, 성지순례 만족 및 행동의도 관계연구,” 『관광레저연구』 19(2007) 363-381.
 6) 김정락, “중세의 성지순례와 성당건축: Peregrinatio ad ecclesiae(성당 내부로의 순례),” 『미술사학』 26(2012) 295-328.
 7) 권봉현,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관광학의 개념 및 성지순례관광에 관한연구,” 『호텔관광연구』 18(2016) 117-138.
 8) 류정화·조발그니, “해외성지순례가 종교성 및 성지순례 관여도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1(2020) 733-744.

발그니는 신앙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는 교육과정인 전환학습으로서의 성지순례를 신앙의 차원들인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전례, 영성, 회개, 하나님 및 신앙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종교적 경험으로 보았다.⁹⁾ 그 외 성지순례와 관련하여 조발그니는 종교성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성지순례의 관여도,¹⁰⁾ 송현동은 성지순례가 여행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럼에도 관광에서의 성지순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봄,¹¹⁾ 신광철은 종교적 의미의 성지순례로부터 대중문화로의 확장성에 대해,¹²⁾ 채승희는 성지순례의 의의와 목적에 대한 바른 인식을 기반으로 한 성지순례와 성숙한 신앙인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¹³⁾

선행연구에 나타난 성지순례의 의미 및 역할을 살펴볼 때, 성지순례가 순례자로 하여금 과거의 신앙적 자취들에 대한 기억과 회상, 그리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현재 신앙에 대한 반성, 나아가 종말론적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에 의하면 신앙은 다양한 차원을 포괄한다. 니버는 신앙을 육면체(cube)로 설명하는데, 즉 육면체를 바라볼 때, 시야에 드러나는 면이 있는 반면에 드러나지 않는 면이 있는 것처럼 신앙 역시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영역과 확인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¹⁴⁾ 다시 말해, 신앙은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적 신앙의 의미 및 성찰뿐만 아니라, 신앙의 내면화 및 구체적 신앙의 실천과 관련한 신앙적 덕목들까지 포괄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맥락에서 성지순례는 니버의 다

9) 조발그니, “전환학습 관점에서 본 성인 신앙교육으로서 성지순례,” 『신학전망』 208(2020) 166-198.
 10) 조발그니, “종교성, 성지순례 관여도, 삶의 만족도의 관계 검증: 성지순례 관여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2019) 799-810.
 11) 송현동, “성지순례의 관광학적 의미 고찰,” 『종교문화연구』 32(2019) 47-68.
 12) 신광철, “성지순례 개념의 확장성에 대한 연구: 콘텐츠 투어리즘의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32(2019) 69-92.
 13) 채승희, “고대 교회의 성지 순례: 성지순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 성숙을 위한 소고,” 『신학과 목회』 50(2018) 55-78.
 14) Helmut Richard Niebuhr, *Faith on Earth: An Inquiry into the Structure of Human Faith*, ed., Richard R. Niebuhr(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9), 12.

양한 신앙 차원을 위한 교육적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차원의 속의(熟議)는 각 차원들의 균형, 상호관계 및 상호보완을 통한 전체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전체성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성지순례를 전체성을 지향하는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는 홀리스틱 교육과정으로 접근하면서 성지순례 기간 중 수행되는 교수-학습과정에 관한 탐구뿐만 아니라, 성지순례 전후 수행 가능한 교육모형 논의를 통해 홀리스틱 신앙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홀리스틱’의 이해

1. 홀리스틱 신앙

홀리스틱 신앙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홀리스틱’(holistic)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홀리스틱은 ‘홀리즘적인’이라는 뜻으로 ‘전체’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홀로스’(holos)로부터 파생되었으며, ‘홀리즘’(holism)은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전체를 의미한다.¹⁵⁾ 홀리스틱 개념이 신앙과 연결될 때, 홀리스틱 신앙은 신앙의 다양한 차원을 포괄한다는 의미로 환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차원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니버에 의하면 신앙은 신앙의 다양한 차원이란 할 수 있는 교리에 대한 믿음, 직관적 혹은 자명한 진리의 수용, 확신이나 신뢰, 일반적 종교나 역사적 종교 속에서의 경건,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인간의 관계, 인간의 대인관계 등으로 이해된다.¹⁶⁾ 그리고 오스머는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맺는 신뢰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그것을 네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신뢰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념, 둘째는 신앙 안에서 우리를 타인들과의 관계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셋째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의지할 만한 하나님을 향한 헌

15) 송민영, 『홀리스틱 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2006), 17.

16) Helmut Richard Niebuhr, *Faith on Earth: An Inquiry into the Structure of Human Faith*, 4.

신, 넷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와 조절을 제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신비에 대한 인식이다. 오스머는 이 외에도 순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까지 신앙의 차원을 확장시킨다.¹⁷⁾ 니버와 오스머에 의한 다양한 신앙의 차원을 이해해 볼 때, 홀리스틱 신앙은 신앙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 신앙하는 대상과 신앙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 그리고 신앙하는 대상에 대한 신앙 당사자의 신뢰를 표출하는 구체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환원하자면, 벤자민 블룸(Benjamin Bloom)과 그 제자들에 의한 교육목표분류학에서 나타난 세 가지 영역, 즉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역 간 관계적, 균형적 포괄 및 신과의 관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영적인 차원의 통합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2. 홀리스틱 교육과정

홀리스틱 개념은 ‘전체’(the whole)에 기반을 둔다. 존 밀러(John P. Miller)는 전체의 의미를 인간의 몸(body)을 통해 설명하는데, 즉 우리 몸의 각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우리 몸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연결은 전체를 형성한다.¹⁸⁾ 그리고 전체의 상태라 할 수 있는 ‘전체성’(wholeness)이 교육과정과 관련할 때, 사고와 직관의 이어짐, 마음과 몸의 관계, 여러 영역의 지식들 간의 관계성, 자신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성, 소아(self)와 대아(Self), 즉 자신 스스로 알고 있는 자신(self)과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대아(Self)와의 관계성과 관련한다고 할 수 있다.¹⁹⁾ 환언하여, 홀리스틱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사고와 직관 사이의 균형, 그리고 은유와 심상과 같은 다양한 기술에 기반 한 다양한 사고의 접근, 마음과 몸의 관계

17) 리처드 오스머/사미자 옮김, 『신앙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24-25, 27; Richard Robert Osmer, *Teaching for Faith: A Guide for Teachers of Adult Classes* (Kentucky, Louisville: W/JKP, 1992), 22-38.

18) John, P. Miller, “A Holistic Vision of Teacher Education,” in *Holistic Education and Embodied Learning*, eds. John P. Miller, Kelli Nigh (NC: INFORMATION AGE PUBLISHING, 2017), 321.

19) 송민영, 『홀리스틱 교육사상』, 196-197.

를 다양한 운동, 즉 움직임, 춤, 이완이나 집중을 위한 활동을 통해 탐구하는 것, 학문적 원리와 다양한 교과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자신 및 공동체와 다양한 교과적 지식 간 연계, 학습자가 소속된 학교, 사회, 국가, 나아가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학습자 자신이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제한적 이해를 넘어 자신의 가장 깊은 곳, 곧 영적인 차원과 관계에까지 관련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²⁰⁾ 같은 맥락에서 밀러가 설명하는 홀리스틱 교육은 전인적 인간 발달을 위한 양육 활동으로서 지적, 감정적, 육체적, 사회적, 심미적, 그리고 영적인 영역을 포괄한다. 이러한 영역들 중에서 홀리스틱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규정하는 면은 학생들로 하여금 경외와 감탄의 감각을 되살리는, 그리고 우주와의 유대감을 심화시키는 것을 포괄하는 영적인 영역이다.²¹⁾ 이러한 밀러의 홀리스틱 교육에는 세 가지 기본 원리들이 있는데, 첫째는 교과과정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수준의 학습에서 연결을 촉진하는 접근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유대'(connectedness)이다. 이 유대는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의 통합, 몸과 마음의 연결, 과목들의 통합, 지역사회로의 연결, 지구와의 연계 제공, 그리고 영과 혼의 연결을 포함한다.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에 의하면 이러한 유대의 의미를 반대하는 개념으로서 관계의 역동을 대체해 버리는, 그리고 상호 의존 형식을 벗어나 극단적인 독립의 위치를 차지하는 태도로서의 배제이다.²²⁾ 둘째는 모든 유형의 학생들의 포함, 그리고 그러한 학생들에게 미치지 위한 학습 접근법들의 폭넓은 유형들의 제공을 의미하는 '포괄'(inclusion)이다. 세 번째는 우주의 모든 수준에는 인식되고 돌보아야 할 상호보완적인 힘과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도(Tao)와 음양(yin/yang)의 개념에 기반 한 '균형'(balance)이다. 교육의 측면에서 이것은 교실에서의 상호보완적 에너지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은 학습에 있어서 합리성과 개인 경쟁과 같은 양의 에너지에 의해 지배적이었던 반면, 직관과 협동적인 접근을 육성하는 음의 에너지를 무시해왔다.²³⁾

20) Ibid.

21) John P. Miller, Selia Karsten, Diana Denton, Deborah Orr, Isabella Colalillo Kates, eds., *HOLISTIC LEARNING AND SPIRITUALITY IN EDUCATION: BREAKING NEW GROUND*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5), 2.

22) 미로슬라브 볼프/박세혁 옮김, 『배제와 포용』(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6), 101.

이러한 맥락에서 니버, 오스머, 밀러가 제공한 신앙의 차원과 내용, 그리고 홀리스틱 교육의 의미 제공은 다음과 같은 홀리스틱 교육과정에 대한 네 가지 차원의 설명에 기여한다. 첫째, 인지적 차원이다. 이는 학습자에 의한 지적 활동과 관련한다. 이 차원은 교육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대상들인 절대적 타자로서의 초월자, 그 초월자로부터 제공된 계시들, 초월자와 신앙인 간 상호작용 속에서 양산된 경전 및 문헌, 그리고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역사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정보들에 대한 학습자의 삶에 대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서적 차원이다. 블룸 등에 의하면 정서적 차원은 학습자에 의한 감정, 가치 판단, 특정한 의미에 대한 내면화 및 인격화 등과 관련한다.²⁴⁾ 부연하자면, 정서적 차원은 느낌, 즐거움, 슬픔, 만족, 경이(驚異) 등과 같은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 개인이 경험한 대상에 대한 의미 규정 및 그에 따른 가치부여, 부여한 가치에 대한 위계적 조직화, 그리고 자기 내면화에 의한 실천 기준으로서의 인격화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행동적 차원이다. 여기서 학습자의 행동은 무조건적 반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의사소통, 정서적 차원에서의 인격화에 따른 주제적 및 창의적 행위 등에 관련한다. 이를 기독교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부연하자면,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의 광의의 교육과정으로서의 케리그마,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와 관련한 구체적 실천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²⁵⁾ 넷째, 영적 차원이다. 기독교 교육환경에서의 영적 차원은 인간의 지적, 정서적, 실천적 영역 내용들 간 연결과 통합, 그리고 피조물로서 인간이 창조자인 초월자를 감지하고, 초월자의 역사(役事)에 대해 경외와 감탄을 보이며, 초월자와의 관계형성 및 성숙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III. 홀리스틱 신앙을 위한 성지순례

23) Ibid., 3.

24) 김영천, 『교육과정 I』(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09), 141-144.

25) 마리아 해리스/고용수 옮김, 『교육목회 커리큘럼』(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21.

1. 성지순례 이해

보리스 볼코닉(Boris Vukonić)에 의하면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의 신화에 따라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장소를 방문하는 일은 그들이 가진 몇몇의 혹은 모든 영적 및 물질적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특히 기독교에서 그와 같이 정화, 구속, 치유 등과 같은 목적으로 거룩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성지순례라 보았다.²⁶⁾ 발렌 스미스(Valene L. Smith)에 의하면 성지순례의 시작은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 그리고 난 후에는 종교적 유물과 관련이 있는 성지로 이어졌다.²⁷⁾ 기독교가 박해의 대상에서 공인 및 국교로의 위상이 달라지고 콘스탄틴 황제와 그의 어머니 헬레나에 의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순례의 행렬이 더해졌다.²⁸⁾ 이러한 성지순례는 터너(Victor Turner & Edith Turner)에 의하면 네 가지 유형을 가진다. 첫째는 원형적 순례로서 문헌적 권위나 광범위한 전통적 증거들에 나타난 역사적 종교의 창시자나, 그의 첫 제자들, 그리고 중요한 국가적 신앙적 전도자들에 의해 설정된 순례이다. 예컨대, 기독교의 예루살렘과 로마, 이슬람의 메카, 힌두교의 카일라스 산(Mount Kailas), 그리고 불교의 칸디(Kandy) 등이다. 둘째는 고대(archaic) 순례로서 이전 종교들보다 더 오래된 믿음과 상징들의 분명한 혼합주의 흔적들을 가진 장소들을 위한 순례로서 예컨대, 켈트의 이교적 성향을 지닌 잉글랜드 서머셋의 글래스톤베리(Glastonbury), 아일랜드 서부의 크로아 패트릭(Croagh Patrick), 멕시코의 찰마(Chalma), 인도의 팬드하푸르(Pandharpur) 등이다. 셋째는 중세의 순례로서 500년에서 1400년 사이 유럽의 기독교 세계에서 형성된 대중적이면서 문학적 전통에 기반 한 순례로서 영국의 캔터베리와 월싱햄(Canterbury and

26) Boris Vukonic, "Medjugorje's Religion and Tourism Connec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 (1992), 80.

27) Valene L. Smith, "introduction: The Quest in Guest,"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9 (1992), 7.

28) 김 정, "4세기 예루살렘교회의 세례예식: 씨릴 감독과 에제리아 수녀의 증언," 『신학과 실천』 38(2014) 99-100.

Walsingham), 스페인의 콤포스텔라(Compostela), 프랑스의 샤르트르(Chartres), 이탈리아의 로레토와 아시시(Loreto and Assisi), 스위스의 아인지델른(Einsiedeln), 독일의 쾰른과 알토팅(Cologne and Altotting), 그리고 폴란드의 쳡스트호바(Czestochowa)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중세 유럽 카톨릭이 강세이던 시대가 지난 후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성장한 순례 유형으로서 현대 세속화에 대하여 상당히 종교적인 양상을 띠면서 열렬한 개인적 경건으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적 순례이다.²⁹⁾ 최근 성지순례는 터너에 의한 네 가지 성지순례가 혼합된 유형으로 다양한 요구에 의해 앞서 기술한 순례자들을 방문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2. 교육과정으로서의 성지순례

교육과정은 '달린다, 뛴다'는 뜻의 라틴어 '쿠레레'(currere)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학생들이 달리는 것, 즉 학생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 기간 공부를 수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⁰⁾ 이러한 개념의 교육과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컨대 모더니즘적 개념으로서의 교육과정으로는 교과들의 목록, 해당 교과의 교수요목, 강의요목으로 그 개념을 환원할 수 있는 학생입장에서는 학습해 나가야 할, 교사입장에서는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강조하는 교육내용으로서의 교육과정, 교육목적, 교육내용의 체계,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운영 등이 포함되어 문서에 나타난 교육계획을 의미하는 학습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경험을 강조하는 학습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학습성공을 강조하는 학습결과로서의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이 알아야 하는 것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교육과정의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성취기준으로서의 교육과정 등이 있다.³¹⁾

29) Victor Turner, Edith Turner, *Image and Pilgrimage in Christian Culture: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17-19.

30) 김영천, 『교육과정 I』, 6.

윌리엄 파이너(William F. Pinar)에 의한 포스트모더니즘적 개념으로서의 교육과정들은 학교교육을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도구로 이해하려는 정치적 교육과정, 학교교육을 인종차별과 식민의식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인종적 재생산 도구로서의 교육과정, 학교교육을 성역 할과 성차별의 재생산 도구로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성 재생산 도구로서의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경험의 실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교육과정, 학교나 교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현상을 미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미학적 교육과정, 한 개인의 전기적 삶과 경험들을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생애사적 연구를 이해하고자 하는 자서전적·생애사적 교육과정,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이 전제하는 주요 개념들을 이용하여 이전 교육과정을 새롭게 접근하고자 하는 포스트모던적 교육과정, 그 외 신학적, 제도화된, 국제적 교육과정 등이 있다.³²⁾

성지순례를 교육과정으로 접근할 때, 성지순례는 교육과정에 참여한 당사자의 교육적 경험뿐만 아니라, 그 교육적 경험이 제공하는 신앙적 의미에 대한 성찰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신앙적 성숙에 관련한다는 면에서 모더니즘적 개념에서의 학습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과 포스트모더니즘 개념에서의 자서전적·생애사적 교육과정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서전적·생애사적 교육과정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currere 방법’인 학습자에 의한 스스로의 교육적 경험에 대한 분석 및 자신의 실존적 의미성찰을 위한 네 단계, 즉 회귀적 단계, 전진적 단계, 분석적 단계, 종합적 단계는 성지순례에서 발견되는 학습경험과 상통한다.³³⁾ 그것은 개인의 실존적 경험 상기 혹은 과거로의 귀환인 회귀적 단계,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는 전진적 단계, 당사자가 과거와 미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보면서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의 복잡성을 살펴보는 분석적 단계,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현재가 지닌 의미를 질문하는 종합적 단계는³⁴⁾ 성지순례에 참여한 당사자에 의한 성

31) Ibid., 9-13.

32) Ibid., 21-37; 윌리엄 파이너 외/김복영 외 옮김, 『교육과정 담론의 새 지평』 (서울: 원미사, 2001)

33) 윌리엄 파이너 외/김복영 외 옮김, 『교육과정 담론의 새 지평』, 653-654.

34) Ibid.

지순례를 통한 자신의 과거 회귀, 미래 상상, 과거, 미래, 현재의 연관성 성찰, 그리고 현재 성지순례 경험 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경청과 의미발견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자서전적·생애사적 교육과정의 큐레레 방법으로서 성지순례는 신앙과 관련한 영적인 차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홀리스틱 교육과정과 관련한다. 밀러에 의한 홀리스틱 교육은 전인적 인간 발달을 위한 양육 활동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밀러의 전인적 인간은 물리적 및 생리적 인간의 육체와 관련이 있는 블록의 교육목표분류학에서의 세 영역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과, 밀러의 홀리스틱 교육에서 그 본질을 규명하는 영역인 영적인 영역 즉, 생애적 인간 및 영적인 인간과 대조되는 영적인 인간에 의한 초월자 및 자연적 대상에 대한 경외, 감탄, 그리고 모든 세계를 포괄하는 우주와의 유대감 등을 전유할 줄 아는 존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⁵⁾ 그러므로 홀리스틱 교육과정으로서의 성지순례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그리고 영적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주연수에 의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이 총체적으로 발달한 좋은 인격과 신앙이 통합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육과정과 상통한다.³⁶⁾

첫째, 성지순례의 인지적 영역이다. 인지는 ‘앎’(knowing)과 관련한다. 블록에 의한 인지 영역들은 앎의 단계로 환원할 수 있는데, 과거 학습된 정보의 기억을 의미하는 지식 단계, 단순한 정보의 이해뿐만 아니라, 자료, 기호, 그리고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인 이해 단계, 새로운 상황에 과거 학습한 내용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인 적용 단계, 접하고 있는 정보의 의미나 의도를 파악할 줄 아는 분석 단계, 파편적 정보를 전체적 맥락에서 구조화 할 수 있는 종합 단계, 그리고 정보에 대한 비판과 가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평가 단계는³⁷⁾ 성지순례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성지순례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성지(聖地)와 관련한 역사, 성서, 문헌, 문화와 같은 다양한 정보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앎의

35) 김진영, “코로나19 이후 기독교 교육과정으로서의 영성 연구,” 『신학과 실천』 73(2021) 288-289; John P. Miller, Selia Karsten, Diana Denton, Deborah Orr, Isabella Colalillo Kates, eds., *HOLISTIC LEARNING AND SPIRITUALITY IN EDUCATION: BREAKING NEW GROUND*, 2.

36) 주연수, “도덕적 상상력과 기독교인성교육,” 『신학과 실천』 63(2019) 422.

37) 김영천, 『교육과정 I』, 123-141.

단계와 상통한다. 왜냐하면 특정한 장소에서 안내자에 의해 접하게 되는 정보들이 과거 성지순례 당사자가 학습한 내용들이라면 지식이, 안내자에 의해 단순한 정보만이 아니라, 특정한 자료나 문헌에 대한 해석에 의한 의미 파악을 경험했다면 이해가 경험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의미 파악을 통해 그동안 오해 또는 곡해해 온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적절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면 분석이, 과거 텍스트를 통해서만 이해해 온 정보나 교육적 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함으로써 고려하게 되는 다양한 차원과 관점, 물리적 환경이 주는 영향들,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행간의 의미 등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화 능력인 종합이,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획득한 앎을 통해 과거 전유하지 못했던 비판적 안목으로서의 평가가 성지순례 과정 속에서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성지순례의 정서적 영역이다. 정서적 영역은 인지적 영역의 강조에 따라 소외될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과 관련하는데, 이는 드러난 현상 및 특정한 아이디어, 그리고 주어진 가치들에 대한 개인의 내면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블룸 외에 의하면 정서적 영역은 어떤 자극이나 새로운 내용에 대해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학습하려는 학습자의 행동 수준인 수용 단계, 단순한 수용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참여 및 자발적 반응으로 만족감을 경험하는 수준인 반응 단계, 특정 대상이나 행위에 대해 의의와 가치를 부여하고 내면화하여 행동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수준인 가치화 단계,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 개념화 및 위계화 하는 조직화 단계, 그리고 앞선 과정 속에서 조직화된 가치체계가 개인의 인격으로 내면화됨으로 일관된 행동을 예측하도록 하는 인격화 단계로 구분된다.³⁸⁾ 일반 여행의 경험을 통해 심리적 장애가 치료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³⁹⁾ 성지순례 과정 속에서 정서적 영역과 관련한 경험들은 성지순례 참여자들이 성지의 현장 가이드로부터 듣게 되는 성서, 문화, 역사, 문헌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수용, 그리고 즐거움, 흥미, 만족감과 같은 반응, 나아가 안내자로부터 수용한 정보들, 자신이 전유해 온 기존 가치체계, 그리고 성지순례

38) Ibid., 141-144.

39) 김홍근, 원수현, “여성 지향적 여행을 통한 심리치료,” 『신학과 실천』 62(2018) 154-155.

기간 동안 일어나는 참여자 간 상호작용과 일련의 경험들에 대한 성찰 속에서 생경하고 이질적인 대상이나 행위에 대한 가치화, 그리고 그 가치화에 의한 행동지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성지순례의 행동적 영역이다. 행동적 영역은 신체의 물리적 운동과 관련한다. 블룸의 뒤를 이은 학자들에 의한 목표설정을 위한 행동 수준으로서 성지순례 중 나타나는 행위에 부합하는 수준은 학습을 통한 외현적 행동, 그리고 신체적 운동을 통한 의사소통 기능을 강조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⁴⁰⁾ 성지순례의 전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실천적 경험으로는 순례여행을 위한 준비, 출발 전 공항 짐걸, 출국, 환승, 입국,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에 따라 순례하는 여정, 귀국, 그리고 성지순례 후 신앙생활까지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행동 속에서 성지순례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낯선 사람들 및 새로운 환경과의 만남, 성지의 문화 이해와 수용을 통한 순례, 순례자들 간 의사소통, 공동체 식사, 성지에서 행하는 예배, 기도, 찬양 등의 의식들, 그리고 양보, 협동, 약속엄수 등과 같은 공동체적 행위 등을 경험한다. 성지순례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개인 의식과 자기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관계성 기반의 의사소통 및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넷째, 성지순례의 영적 영역이다. 밀러에 의한 홀리스틱 교육은 전인적 발달, 즉 인간의 지적, 감정적, 육체적, 사회적, 심미적, 영적 영역을 포괄하는 교육을 의미하지만, 그 중 영적인 영역은 홀리스틱 교육의 본질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영역이다. 이 때 영성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경외와 감탄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주(cosmos)와의 연계성에 대한 감각을 심화하는 것과 관련한다.⁴¹⁾ 환언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특정한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띠며, 이 관계성과 공동체성은 하나님과의 유대성이라 할 수 있는 영성을 표현하고 강화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⁴²⁾ 성지순례에서

40) Ibid., 144-146.

41) John P. Miller, Selia Karsten, Diana Denton, Deborah Orr, Isabella Colalillo Kates, eds., *HOLISTIC LEARNING AND SPIRITUALITY IN EDUCATION: BREAKING NEW GROUND*, 2.

42) 김경은, “필립 셸드레이크(Philip Shelldrake)의 도시 영성 연구: 화해를 추구하는 영적 도시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68(2020) 234-238.

의 영적인 영역은 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과의 연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 설명은 밀러의 홀리스틱 교육의 기본 원리인 유대, 포괄, 균형과도 부합한다. 예컨대, 성지순례 안내자로부터 듣게 되는 성지에 관한 역사적, 성서적, 문화적, 언어적 내용에 대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인지적 영역, 수용,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의 정서적 영역, 순례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학습에 의한 외현 및 의사소통 기능의 행동적 영역, 그리고 이러한 영역들 간 유대, 포괄, 균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초월자 및 초월자와 피조물들이 형성한 창조물들에 대한 관계, 경의, 감탄이 그것이다. 이정배는 기후 붕괴 시대에 직면한 현대사회 속에서 초월자에 의한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생태평극복과 생태적 자아로서의 생태영성을 강조한다.⁴³⁾

3. 성지순례 교육모형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그리고 영적 영역을 포괄하는 홀리스틱 교육과정으로서의 성지순례는 성지순례가 진행되는 동안뿐만 아니라, 성지순례에 참여하기 이전 예비교육과 성지순례 이후 계속교육까지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성지순례 전 예비교육은 인지적 및 정서적 영역이, 성지순례 중 교육은 모든 영역이, 그리고 성지순례 후 계속교육은 인지적, 정서적, 영적 영역의 강화 및 활성화와 관련한다. 부연하자면, 성지순례를 위한 예비교육은 성지순례에 참여하게 될 당사자들에게 성지순례를 통해 방문하게 될 성지에 대한 문화, 역사, 성서, 그리고 여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들을 교육하면서 인지적 영역의 하위 단계인 지식 및 이해 수준과 정서적 영역의 하위 단계인 수용 및 반응 수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성지순례 이후 계속교육은 먼저 인지적 영역으로서 예비교육과 성지순례 중에 학습한 정보와 내용들의 반추로, 정서적 영역으로서 성지순례 경험 속에서 가치화, 조직화, 그리고 인격화 한 내용들의 확인과 실천으로의 격려로, 영적 영역으로서 성지순례 속에서 경험한 절대자에 대한 경외와 감탄을 통한 일상에서의 절대자와의 관계성 추구, 회복, 강화 등으로 수행될 수 있다.

43) 이정배, 『생태 영성과 기독교의 재주체화』 (서울: 동연, 2010), 33-51.

성지순례는 그동안 성지순례에 소요되는 비용, 순례 시기, 그리고 순례 기간 등의 이유로 교회 내 성년기 이상의 연령층들의 관심사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텔레비전 방송 및 다양한 인터넷 사회 관계망 채널 등을 통해 해외여행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공교육에서 부모와 여행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교외체험학습 제도, 그리고 저비용항공사 및 항공사 간 항공노선 공급 경쟁 등과 같은 이유로 성지순례 연령층이 특정한 연령층으로 제한되지 않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홀리스틱 교육과정으로서의 성지순례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교회현장에서 수행 가능한 성지순례 교육모형을 출발 전 예비교육, 성지순례 중 교육, 그리고 성지순례 후 계속교육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및 영적 영역을 중심으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성지순례 전 예비교육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교육은 그에 상응하는 목적이 있다. 민장배는 세례 예비자 교육과 관련하여 예비자 교육은 학습자 당사자의 온전한 성장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교회의 질적 성장에까지 기여한다고 보았다.⁴⁴⁾ 이러한 견지는 마리아 헤리스의 교회의 전 삶, 즉 공동체의 교제, 예배와 예전, 가르침과 훈련, 말씀의 선포와 전도, 섬김과 봉사 전체를 통한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다.⁴⁵⁾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수행하는 예비교육 역시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영역에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 전체의 신앙형성 및 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성지순례 예비교육은 성지순례에 참여하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수행될 수 있는데, 교수-학습과정으로서 교회리더십 혹은 성지순례 전문 안내자에 의한 강의, 시청각 자료 제공, 질의 및 응답 등과 같은 절차 등이 있다.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인지적 영역으로서 성지순례 시 방문하게 될 장소의 역사적 배경, 성서 속 이야기, 문화적 정보, 그리고 해외여행정보 등이 해당된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설명하게 되는 경우, 예루살렘의 명칭과 도시의 기원, 성서에 나타나는 예루살렘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과 사

44) 민장배, “세례 예비자 교육에 대한 소고,” 『신학과 실천』 32(2012) 216.

45) 고용수, 『교회의 기독교 교육과정』 (서울: 기독교, 2005), 131.

건에 관한 이야기, 예루살렘 내 방문 가능한 장소 및 지형에 대한 정보, 종교적 전통, 현대인들의 생활, 그리고 여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및 에티켓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블룸의 인지적 영역 중 지식 및 이해의 수준이 경험될 수 있다. 예비교육에서의 정서적 영역은 블룸의 분류를 적용해 볼 때, 예비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앞서 살펴본 인지적 영역의 정보들을 교회 리더십 혹은 성지순례 전문 안내자로부터 듣고 그에 대해 내면화 하는 정도와 관련한다. 예컨대, 예비교육에서 경험가능한 정서적 영역의 수준인 수용과 반응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흥미 등과 같은 학습경험으로서 성지순례 중 교육에서의 경험하는 정서적 수준인 가치화, 조직화, 그리고 계속교육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수준인 인격화를 추동하게 하는 정서적 역동이라 할 수 있다.

2) 성지순례 중 교육

성지순례 중 교육은 성지순례에 참여한 순례자들이 성지에 도착해 현지를 안내하는 가이드를 만나면서부터, 혹은 한국에서 함께 떠난 인솔자가 현지에서 가이드를 하는 경우 현지에 도착해서부터 성지순례를 마치고 귀국 길에 올 때까지 듣고, 보고,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지적 차원의 교육내용은 예비교육에서의 지식 및 이해 수준을 넘어 적용, 분석, 종합, 즉 가이드로부터 듣게 되는 내용과 정보에 대한 해석 및 가치판단 능력까지 확장된다. 예비교육에서는 문헌에 나타나는 텍스트나 강사의 이야기에만 의존했던 반면, 성지순례 중 교육은 실제 현장에서 통시적 및 공시적 의미를 성찰하면서 고차원적 사고과정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구약 성서시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도시였으며, 이곳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안 다거나(지식),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의 도시라는 것을 아는 정도의 수준(이해)을 넘어, 어떻게 예루살렘이 그토록 중요한 도시가 될 수 있었는지 성지순례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예루살렘의 지형적 환경과 특징, 성전의 터와 흔적을 실제로 확인하면서 예루살렘을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리고 종교적 중심지로서 해석할 수 있으며(적용 및 분석), 예루살렘을 둘러싼 과거의 흔적들을 통해 과거 예루살렘의 종교적 의미 성찰 및 예루살렘의 역사성을 판단(종합)할 수 있다.⁴⁶⁾

46) 김진산, 『역사와 지리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구약편』(안산: 이야기books,

정서적 차원의 교육내용은 예비교육에서의 수용과 반응 수준뿐만 아니라, 성지순례 중 보고, 듣고, 경험하는 여정 속에서 신앙적 태도 및 가치에 대한 성찰, 즉 가치화 및 조직화 수준이 경험될 수 있다. 성지순례 중 행동적 차원 교육내용은 단순히 순례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적인 행동수준을 넘어 현지에 도착하면서 시작되는 공동체 생활, 순례자들 간 의사소통, 그리고 초월자와의 신앙적 관계를 표현하는 다양한 의식들, 즉 예배, 기도, 찬양, 성만찬, 세례 등이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따른 행위로서, 그리고 공동체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성지순례 중 교육에서의 영적 영역 교육내용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의 내용들을 파편적이기 보다 통합적으로 접근하면서 성지순례 당사자에 의한 초월자와의 관계성, 초월자의 존재와 초월자에 의한 창조에 대한 감탄과 경외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비아돌로사’(Via Dolorosa)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지까지 이동해 가신 길이다. 이 길과 관련한 영적 영역의 교육내용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의 통합적 접근뿐만 아니라, 절대자와의 관계성인 영적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인지적 내용은 슬픔의 길과 연관된 성서에 나타난 텍스트로써, 정서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공감 및 감사, 그리고 십자가의 숭고한 가치에 대한 내면화로 십자가에 상응하는 삶의 추구로, 행동적으로는 슬픔의 길을 실제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기, 신발을 벗은 채 걷기, 걸으며 기도하기, 걸으며 찬송하기, 무릎을 꿇은 채 묵상하기 등의 행위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유대, 포괄, 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초월자에 의한 사랑의 계시와 죄인의 구속적 사랑에 대한 경외와 감탄으로 경험할 수 있다.

3) 성지순례 후 계속교육

성지순례 후 계속교육은 두 가지 내용을 의미한다. 첫째, 나눔과 복습을 통한 교육적 내용이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 계속교육을 위한 모임 속에서 수행되는 나눔과 교제, 소감발표, 성지순례에 대한 환기 및 질문과 응답 시간 등은 성지순례 참여자로 하여금 성지순례 준비과정부터 성지순례를 경험하고 돌아 오기까지 경험한 인지적 영역의 모든 수준과 내용을 반추 및 재인하게 하여 자

신들이 경험한 성지순례를 성찰 및 평가하도록 한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성지순례를 경험하면서 내면화 한 가치들을 생활 속에서 일관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여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및 영적 영역을 통합하는 홀리스틱 신앙의 수준을 통한 신앙형성 및 성숙을 격려한다. 둘째, 성지순례 후 계속교육은 또 다른, 그리고 더 발전된 성지순례 기회를 제공한다. 성지순례는 그 특성상 시간 및 예산 규모를 장기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기획하는 당사자들은 이미 경험한 성지순례를 활용하여 또 다른 성지순례 일정의 심화, 순례 일정과 장소의 변화 및 확대, 그리고 새로운 성지의 추가 및 방문 계획 등을 고려할 수 있다.

IV. 나가는 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국가별 방역정책은 각국의 정치적 및 경제적 상황, 방역과 백신효과 등에 의해 멀지 않아 완화 및 개방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수년간에 걸친 영향으로 현대인들은 무력감, 불안감, 우울증, 분노, 좌절, 절망, 압담함 등과 같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겪어 오고 있다. 이는 교회 구성원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그것은 교회의 비대면 예배, 제한적 출석,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교회사역의 전형적인 활동들이라 할 수 있는 케리그마,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의 균형적 경험은 불가능해졌으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목회적 시도들 역시 제한적이거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리더십들은 예상되는 교회의 재개방에 발맞추어 이러한 상황을 효율적으로 타개하는데 실마리가 되는 특정한 목회적 실천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성지순례는 일반적인 관광의 수준과 구별된다. 그것은 성지순례의 시작인 기독교 초기 형성기와 관련한 유물이나 장소들을 위한 순례로부터 오늘날 현대 사회의 특징에 대한 저항 및 개인적 경건에 이르기까지 성지순례는 인지적 및 정서적 차원의 만족만이 아니라, 초월자와의 관계 및 초월자의 역사에 대한 경

외와 감탄을 통한 홀리스틱한 신앙형성과 관련된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지순례는 홀리스틱 교육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 교회 내 교육과정으로서 성지순례의 고려이다. 과거 특정 연령층이 전유해왔던 성지순례의 참여는 이제 그 연령층이 다양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성지순례는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 영역의 발달과 성숙뿐만 아니라, 영성을 일깨우는 본질로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홀리스틱 신앙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성지순례를 교육적 차원으로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내 기독교 유적지에 대한 관심과 탐방의 활성화이다. 국내 기독교 유적지의 탐방은 터너에 의하면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형성된 현대적 순례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지순례는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등과 같은 해외 성지순례를 의미하지만, 한국에도 조선 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전래되는 시기 한국 원주민에 의한 선교사들에 대한 박해, 선교사들에 의한 의료, 교육, 포교 및 교회 설립, 일제 강점기 천황숭배 및 신사참배 거부, 한국전쟁 당시 기독교인의 순교, 그 외 소외계층을 위한 헌신 등과 관련한 기독교 유적지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홀리스틱 교육과정으로서의 성지순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국내 기독교 유적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회의 역량에 따라 연령, 접근성, 경제성, 순례기간 등을 고려해 탐방할 수 있다. 셋째, 성지순례의 단계적 계획이다. 성지순례는 크게 국내 기독교 유적지 탐방과 해외 기독교 성지순례로 나눌 수 있다. 해외 성지순례 경우, 구약성서 모세의 출애굽과 관련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여정, 족장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착, 왕정시대, 그리고 신약성서 사복음서와 관련한 이스라엘 여정, 바울의 교회설립, 전도, 그리고 순교와 관련한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여정, 종교개혁과 관련한 체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여정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교회는 성지순례를 교회 교육과정으로 고려하되 각 여정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예비교육, 성지순례 중 교육, 계속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용수. 『교회의 기독교 교육과정』. 서울: 기독한교, 2005.

권봉현.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관광학의 개념 및 성지순례관광에 관한연구.” 『호텔관광연구』 18(2016), 117-138.

권중현, 정익준. “기독교 성지순례 참가동기, 성지매력속성, 성지순례 만족 및 행동의도관계연구.” 『관광레저연구』 19(2007), 363-381.

김경은. “필립 셸드레이크(Philip Shelldrake)의 도시 영성 연구: 화해를 추구하는 영적 도시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68(2020), 231-254.

김영천. 『교육과정 I』.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09.

김 정. “4세기 예루살렘교회의 세례예식: 씨털 감독과 에제리아 수녀의 증언.” 『신학과 실천』 38(2014), 97-119.

김정락. “중세의 성지순례와 성당건축: Peregrinatio ad ecclesiae(성당 내부로의 순례).” 『미술사학』 26(2012), 295-328.

김진산. 『역사와 지리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구약편』. 안산: 이야기books, 2020.

김진영. “코로나19 이후 기독교 교육과정으로서의 영성 연구.” 『신학과 실천』 73(2021), 281-306.

김홍근, 원수현. “영성 지향적 여행을 통한 심리치료.” 『신학과 실천』 62(2018), 153-185.

민장배. “세례 예비자 교육에 대한 소고.” 『신학과 실천』 32(2012), 199-230.

류정희, 조발그니. “해외성지순례가 종교성 및 성지순례 관여도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1(2020), 733-744.

볼프, 미로슬라브/박세혁 옮김. 『배제와 포용』.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6.

송민영. 『홀리스틱 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2006.

송현동. “성지순례의 관광사적 의미 고찰.” 『종교문화연구』 32(2019), 47-68.

신광철. “성지순례 개념의 확장성에 대한 연구: 콘텐츠 투어리즘의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32(2019), 69-92.

오스머, 리차드/사미자 옮김. 『신앙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이기락. “신앙생활과 성지순례.”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57(2006), 129-151.

이정배. 『생태 영성과 기독교의 재주체화』. 서울: 동연, 2010.

조발그니. “종교성, 성지순례 관여도, 삶의 만족도의 관계 검증: 성지순례 관여도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2019), 799-810.

_____. “전환학습 관점에서 본 성인 신앙교육으로서 성지순례.” 『신학전망』 208(2020), 166-198.

주연수. “도덕적 상상력과 기독교인성교육.” 『신학과 실천』 63(2019), 419-454.

채승희. “고대 교회의 성지 순례: 성지순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 성숙을 위한 소고.” 『신학과 목회』 50(2018), 55-78.

최화선. “장소에 관한 새로운 종교학적 접근의 모색.” 『종교연구』 34(2004), 337-363.

파이너, 윌리엄/김복영 외 옮김. 『교육과정 담론의 새 지평』. 서울: 원미사, 2001.

해리스, 마리아/고용수 옮김. 『교육목회 커리큘럼』.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Miller, John, P. “A Holistic Vision of Teacher Education.” *Holistic Education and Embodied Learning*. edited by Miller, John P. and Nigh, Kelli. NC: INFORMATION AGE PUBLISHING, 2017.

Miller, John, P., Karsten, Selia., Denton, Diana., Orr, Deborah., Kates, Isabella, C. eds. *HOLISTIC LEARNING AND SPIRITUALITY IN EDUCATION: BREAKING NEW GROUND*.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5.

Niebuhr, Helmut Richard. *Faith on Earth: An Inquiry into the Structure of Human Faith*, edited by Niebuhr, Richard R.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9.

Osmer, Richard R. *Teaching for Faith: A Guide for Teachers of Adult*

Classes. Kentucky, Louisville: W/JKP, 1992.

Smith, Valene L. "introduction: The Quest in Guest."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9(1992), 1-17.

Turner, Victor. and Turner, Edith. *Image and Pilgrimage in Christian Culture: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Vukonic, Boris. "Medjugorje's Religion and Tourism Connec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1992), 79-91.

■ Abstract ■

A Study on Pilgrimage as a Holistic Curriculum

Kim, Jin-Young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ver these two years have caused modern people to experience economic as well as emotional crises, which include helplessness, depression, anger, frustration, despair, and loneliness. The members of the church are no exception. As the pandemic's situation improves, travel between countries will become smooth again, and safe tourism overseas may return. When that time comes, pilgrimage can be considered as a holistic curriculum to overcome tasks such as reinvigorating the passive ministry, providing sufficient opportunity for faith formation and maturity education, and most of all healing the emotional scars developed during pandemic. As a holistic curriculum, pilgrimage encompasses four dimensions. First, it is a cognitive dimension related to learners' intellectual activities. This dimension relates to the learner's knowledge of the transcendent's sovereignty, the revelations provided from the transcendent,

the scriptures and literature produced i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ranscendent and the believer, and historical information. Second, it is an emotional dimension related to human feelings, judgments of values, and internalization and personalization of specific meanings by learners. Third, it is a behavioral dimension. The learner's behavior is related to communication expressed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beyond the level of instincts, and subjective and creative behavior according to personification at the emotional dimension. Fourth, it is a spiritual dimension. The spiritual dimension in the Christian educational environment can be explained by connecting and integrating an individual's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domains. This process can be explained as follows: the individual notices the transcendent as creator, and then he or she—as a created lifeform—shows awe and wonder for the transcendent's activities. The individual then forms a relationship with the transcendent and achieves spiritual maturity. Therefore, pilgrimage to the Holy Land is distinct from general tourism. For such an archaic tradition to influence modern peoples' piety today, pilgrimage to the Holy Land contributes not only to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dimensions, but also to holistic faith formation and spiritual maturity through forming awe and wonder for transcendent's history as well as forming a relationship with Him. This study presents each educational model such as preliminary education before pilgrimage, education during pilgrimage, and continuing education after pilgrimage for pilgrimage as a holistic curriculum.

Key Words

Pilgrimage, Curriculum, Holistic Education, Church Education, Faith Formation

논문접수일 : 2021년 10월 26일

논문수정일 : 2021년 11월 11일

논문게재확정일 : 2021년 11월 25일